

# | Ship's Bench |



## 섬의 소설가 한창훈의 나의 문학 속의 바다 : 그러니 저건 길이다

※ 편집자 : 선상벤취(Ship's Bench)는 '바다로부터 (from the Sea)'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배 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여러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해양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삶과 사유를 들어보는 자리다.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섬의 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한창훈님을 모셨다. 초대모임은 2014년 6월 27일 전남 광양의 백운플라자에서 가졌다.



오후 2시. 저 멀리 배가 지나간다. 이쪽도 저 너머도 아닌, 수평선에 걸쳐서 운항중인 대형 컨테이너선이다. 이 시간이면 저 배의 조타실에서는 이등항해사와 이타수가 있다. 항해사는 해도에 그려 넣은 항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할 것이다.

그러니 저건 길이다. ‘누군가 가면 길이 된다’는 명제는 케케묵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내 눈의 수평선에 자신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아마 이쪽을 쌍안경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오래도록 못 볼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풍경이 된다.

여러 해 전 내가 탔던 컨테이너선, 하이웨이 호와 콜롬보 호는 지금 어느 바다를 향해 중일까. 나는 그 배를 타고 한번은 두바이, 한번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갔었다. 수평선을 넘은 것이다. 그 배의 컨테이너 안에는 반도체칩, 컴퓨터, 모니터, 대형 TV, 자전거 같은 고가의 물건들을 비롯해 별의 별것이 다 실려 있었다. 신발과 모자와 중국 폭죽도 있었다. 모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다. 늦은 밤 잔업까지 하면서 밥과 집세와 아이들 학원비를 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배도 일하는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동기와 꿈과 때에 따라서는 체념까지 실고 가는 중이다. 길이란 그런 것들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다.

오후 5시. 이번에는 벌크선이 느리게 지나간다. 뒤쪽으로는 유조선이 따라가고 있다. 다들 덩치 큰 초식동물이다. 사막의 낙타가, 아프리카의 누우 떼가 저렇다. 그들에겐 국경이 없다. 국경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유목민(遊牧民)이 되어야 한다. 배는 바다의 유목민이다.

로테르담까지 갈 때 수십 개의 나라를 거쳤다. 나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베트남 부엌에서 쌀을 씻는 아낙, 낚시 바늘을 묶고 있을 말레이시아 어부, 기도를 올리고 있을 인도의 승려, 소젖을 짜고 있을

에티오피아 늙은 여인, 소총 노리쇠를 닦고 있을 남예멘의 군인, 즐고 있을 이집트의 관료, 양파를 까고 있을 시칠리아 요리사, 화장대 앞에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을 프랑스 아가씨,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로코 청년,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 밤근무를 나가는 스페인의 장교를 떠올려보곤 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의 내 이웃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서도 국경을 만나지 않았고 검문도 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농경민(農耕民)의 후예. 농경민의 행보는 길이가 짧다. 집과 자신이 돌보는 농장이 전부이다. 그렇기에 그 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농경민은 담을 쌓아 자신과 남의 경계를 만든다. 담을 높이 쌓은 이들은 멀리 가지 않는다. 지켜야할 것이 많기에. 개인의 담이 국가로 가면 국경이 된다.

유목민은 반대이다. 가야할 곳이 멀고 많을수록 좋다. 모래 언덕을 천천히 넘어가는 낙타의 도착점은 까마득히 먼 곳이다. 자신의 힘을 적절히 분배하여 최대한 가야한다. 가는 것이 목적이다. 완벽한 이동. 이곳은 이미 떠난 자리여서 의미가 없다. 이곳이 의미를 다시 가지려면 저곳에 도착을 해야 한다. 도착해서 소금을 옷감으로 바꾸어야 이곳으로 돌아올 이유가 생긴다. 배의 도착점도 낙타와 같이 아주 먼 항구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기에 가고 가고 가고 또 간 다음 더 간다. 나무가 우주 어느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는 〈어린 왕자〉 탄생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그 덕에 시속 200킬로프로펠러기(그는 그 비행기로 우편배달을 했었다)의 비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를 나는 알게 되었다. 생텍쥐페리는 골똥히 생각에 잠기곤 했던 허공의 유목민이었다. 내 노트에는 그의 책에서 메모

한 게 여러 개 된다. 이를테면 <시골 노파는 하나의 그림, 하나의 소박한 메달, 하나의 묵주를 통해서만 자신의 신과 만난다> 같은 것.

그의 유량을 그리다보면 인도양 복판이 생각난다. 대양을 향해하다 보면 타원형 바다에 우리 배 단 한 척만 가는 경우가 생긴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푸른 바다와 딱 그만큼 푸른 하늘.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는 배 한 척 뿐인 것이다. 그러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 되지 않는다. 우리 배가 하늘을 향해하면서 저 아래, 또는 저 위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바다여도 좋고 하늘이어도 좋은, 모든 기준과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곳. 실제 조종사들도 하늘과 바다를 자주 혼동한다고 한다.

밤이 와도 그렇다. 수만 개의 별이 쏟아져 내리면 우리는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행성과 행성을 향해하는 우주선이 되었다. 우주의 물활(物活)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나는 수면에서, 그는 허공에서 그 장면을 본 것이다. 그리고 우리배가 결국 항구에 닿았듯이 그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고 만다. 소혹성 B612에서 어린왕자가 온 곳이다. 그 책에 이런 말도 있었다. <난파나 화재를 당하면 자신보다 훨씬 위대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7년 전부터 고향 섬에 돌아와 살고 있다.

이곳에 온 뒤로 받는 질문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이런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서 좋은가? 무엇 때문에 당신은 고향 바다로 돌아갔는가? 당신에게 있어서 바다란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는가... 물기는 쉽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 묻는 데는 5초면 되지만 대답하는 데는 몇 시간이 필요한 것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꼭 묻는다. 왜 내려가(오)는가.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라가면 왜 올라가(오)는지를 안 물어본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 = 대한민국〉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명성과 실체가 다를 때 있다. 유명한 음식점일수록 오만한 주인에 서비스 엉망인 경우는 지금도 넘쳐난다.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만나보니 영 아닌 사람 적잖고 이름난 관광지나 축제 찾아갔다가 찻잔한 심사로 돌아온 경험도 한두번씩은 있을 것이다.

겨울바다가 그렇다. 겨울바다, 이 네 글자를 받음해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근사한 느낌이다. 아련한 슬픔이 알 수 없는 낭만과 뒤섞인 채 피어나고 운명적인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든다. 자꾸 생각하다보면 가기도 전에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고 있는 것 처럼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바다에, 그것도 이렇게 육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섬에, 그대가 온다면 우선 거친 파도가 세찬 바람에 꺾이고 있는 풍경을 만날 것이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흰 포말이 휩쓸려가고 있어서 흠칫, 몸서리 칠 것이다. 메마른 억새밭이나 한쪽으로만 가지가 뺨어버린 나무를 바라볼 때쯤이면 그만 목이 움츠려들 것이다. 눈도 가늘어질 것이다. 주민들이 이미 그런 자세로 견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거기다 딱히 할 것도 없다. 밥이나 제 때 사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단 십 분 만에 겨울바다란 한없이 스산하고 끝없이 쓸쓸한 곳이라는 걸 사무치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원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망을 해도 저 거대한 풍경은 눈썹 하나 끄적이지 않는데. 자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자연(自然)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러하지 않던가. 그러니 고작 여덟 뼨짜리 육신으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계절이 등장하면 사람은

뒤따라갈 뿐이다.

겨울바다의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고 왜 갔느냐’이다. 과연 그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보냈을까. 잘 모르겠다면, 몸이 시키는 대로 해보면 된다. 두어 시간 만에 후회가 들고 여기 너무 추워, 괜히 왔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돌아가는 배 시간을 알아보게 된다면 그대는 〈그냥〉 온 것이 된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대가 자꾸 바다를 따라 걷고, 수면을 바라보고, 차가운 바람에 입김을 내뿜는다면 그대는 이곳에 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다의 가장 큰 특징은, 꼬이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버리는 데에 있다. 한 가지 예로, 실연의 아픔을 가진 사람은 바다로 간다. 홀로 된 자의 바다 행은 자연스러운 행보이다. 어디 실연뿐인가. 삶의 상처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스펙터클 한데. 그렇게 상처 깊거나 오래 되었지만 자꾸 재발이 되는 사람이 바다를 찾아오는 것은 본능(本能)이다.

반대로 산은 마음을 맺히게 한다.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도를 닦는 사람은 산으로 스며든다. 그것도 본능이다. 애인과 헤어지고 등산하는 사람 본 적 있는가. 만약 있다면 보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일 것이다.

풀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서 찾아온 그대. 자신이 철학적이지도, 사색적이지도 않다고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 계절풍이 휩쓸고 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그저 서있거나 걷거나 하기만 하면 된다. 홀연히 수면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만으로 이미 영킨 그 무엇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니체의 말이다.

모성의 치유라 불리도 상관없다. 그저 저 반듯한 수평선이, 무망의 세상이, 수평의 푸른 물이 한숨 나오게 했던 것을 무화시킨다. 물론 갯바위 이곳저곳에 서 있는 낚시꾼들도 보일 것이다. 저들은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이 추위에 저리고들 있을까, 탄식할 필요도 없다. 귀털 하나 하자면, 낚시꾼들은 바다 안 본다. 그들은 오로지 찌만 바라보다가 돌아온다.

동백꽃의 꽃말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 꽃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저 내륙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어느 시인은 느닷없이 툭, 수직으로 떨어지는 동백꽃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젠 뻗다.”

내 소설은 이런 장면들로 인해 시작되었고 진행중이다.

### 경계에서 꿈꾸기 - 서사 지평을 넓히는 또 하나의 방법

우선, 녹색평론 2005년 11~12월호에 있는 박혜영 인하대 영문과 교수의 서평 <슬픈 대륙의 분노한 작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요즘 (우리나라) 문학작품을 읽어보면 조울증이나 자폐증에 걸린 작가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화가 난 작가들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한창훈 소설가

도시 속의 고독인들 왜 중요하지 않겠는가. 요즘은 골목마다, 층마다, 심지어는 방마다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있으니 그들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행위가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마는, 문제는 <쉽게 볼



수 있다)와 <좁처럼 보기 어렵다>의 거리이다. 한쪽은 과잉이고 한쪽은 결핍인, 극심한 불균형. 방향을 약간 틀어, 서사 지평을 넓히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하여 말해보면 ‘요즘 문학작품을 읽어보면 카페나 아파트 안에 갇혀 있는 작가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거친 세상으로 몸을 내던지는 작가들은 좁처럼 보기 어렵다’가 된다.

나는 예전에 작가회의 사무국장 노릇을 했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문화단체 실무자들이 잔뜩 모인 날이 있었다.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들을 쏟아내 보자고 만든 자리였다.

우리가 휴전선 아래에 머문 지 반세기가 넘었다, 국토단절과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요건 때문에 몹시도 협소한 상상력을 지녀왔다, 심리적인 경계부터 허물어야 한다, 세상을 읽어야하고 읽어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정치가 하지 못하는 것을 문화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해나 고구려 같은 북방의 도도한 상상력을 되찾아야 한다’가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

그렇게 다들 육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하긴, 경계란 일단 눈에 보이는 국경일 터이고, 국경 때문에 생긴 행동의 제약이 관념의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이지만, 정 반대쪽에도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천 년 넘게 대륙만 바라보았던 과거가 아직도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접근하고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또 있다. 바다이다. 오늘 발언의 대부분이 한마디로 말해 기차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보자는 것인데, 배 타고 인도양이나 태평양 쪽으로 가보는 것은 어떠한가. 바다는 인류의 시발점이며, 경계가 그중 희박한 인류 공유의 공간이며, 그러기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장소이며, 아직도 모든 것이 무궁무진한 대상이며, 육지와 달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했던 발언이다. 모르긴 몰라도, 바다로 나가보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바다는 피상이고 관념으로만 존재해왔으니까. 이미지로만 떠도는 탓에 피로한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정도에서 늘 끝났으니까. 당장, 항해 체험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나는 대한민국 작가들이 대포 잔 나눌 때 바다 이야기 하는 장면을 그려보곤 한다. 그들의 대화에 구체적인 바다가 등장하기를, 도시인의 고독과 우울 사이에 바다가 접근과 인식과 창작의 대상으로 삼입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두 차례 대양 항해를 했다. 한번은 2005년 인도양 지나 두바이까지 갔고 두 번 째는 작년(2007년)에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도양 아덴만 수에즈운하 지중해 대서양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갔다. 한마디로 지구를 보고 온 것이다. 지구뿐이겠는가? 그곳은 우주까지 인식이 되는 곳이다.

그런데 사실, 이거 한번 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ㅎ상선에 기획서를 제출하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승낙을 얻은 거였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거절당했다)

항구를 중심으로 많은 작가들이 해양관련 창작을 일구고 있다. 그런데 대양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항해를 못해본 사람은 늘 해안가를 서성인다. 바다에 대한 강렬한 창작 욕구는 있되 해안이 마지막 경계인 것이다. 그나마 도시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은 그 바닷가도 피상이고 관념이다. 가봐야 한다. 북방의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방의 대지를 밟아보아야 하듯, 현실체험이 상상력을 이끌고 키워주듯, 바다로 나가봐야 하는 것. 시각의 외연부터 넓히자는 것. 그들을 서로 연결 시켜 줄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항해체험을 하기 위한 문화사업 토대 만들기를 제안한다. 한 예로, 오랜 경력을 지닌 선원들의 <자서전> 편찬을 들 수 있다. 동승한 담당 작가가 채록, 취재 하여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변천과 항해 현장의 인생담을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나 해양관련 재단, 각 해운 회사에서는 근대 이후 해양 발자취를 저작물로 남겨놓을 수 있고 작가들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 관련 1차 저작물이 나오게 된다. 많을수록 좋다. 그레야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 나오니까. 짐작하겠지만, 바다로 나가보면 의외로 이야기 거리가 많다. 유목민과 같은 자유스러운 이동이 있고 시간마다 스치는 이국의 배들이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선원들 삶이 있다. 거대 자연의 숙연한 비장미가 있고 안전 항해를 보장하는 세세한 일과가 있다. 절대 절명의 아찔한 경험과 모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있다.

변방이니까 가능한 것들이다. 정치가 외면하는 장소와 대상에게는 문화가 다가가야 한다. 그러니 작가들이 그곳으로 가야한다. 중심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변방이기 때문이다.

#### 한창훈 韓昌勳 : 소설가

1963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출생

소설집 :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청춘가를 불러요> <나는 여기가 좋다>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 : <홍합>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열 여섯의 섬> <꽃의 나라>

산문집 : <한창훈의 향연>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 - 내 밥상위의 자산어보>

어린이 책 :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

기행문 : <깊고 푸른 바다를 보았지>(공저)가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요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제비꽃서민소설상 수상